

2018년도 표어  
『열매를 맺는 교회』  
(행 2:47)

NEW  
**순복음Life**  
제24호

발행일 : 2018 .4 .1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순복음 Life  
2주년 간증 특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임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에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아리라 함으로 너를 도우리라  
함으로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10절)

## <24호 간증>

-김종숙 권사-

부족한 저에게 간증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문서위원회에서의 간증 부탁을 받고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기회라 생각하며 33년 전 신앙생활과 삶을 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 글을 통하여 도전 받으시고 간접 체험하시면서 많은 신앙의 열매 맺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누군가 일으켜 줘야했고 눕혀줘야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약 먹어도 그때 뿐이었고, 민간요법과 좋아진다는 어떤 소문을 들으면 다 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이 병을 고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며 신앙과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고 눈물의 신음소리는 응답과 기쁨이 되었으며 두려움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병든 육신은 치료가 되어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니 연약하기만 했던 삶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 저는 방 한 칸에서 다섯 식구가 살았습니다. 큰아들 창용이가 열 살, 예진이 여섯 살, 정은이 네 살, 막내 지혜가 한 살이었던 때지요. 남편은 가출하여 집에 없었고 성치 못한 제가 이 아이들을 옴골기 책임 져야 했습니다.

집도 마루를 막아 부엌으로 사용하고 물은 마당에서 길어다 먹어야하는 생활을 6년간 했지만 이러한 환경들이 고생이란 생각은 없었고 주님을 만난 기쁨 때문이었는지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시어머님은 뭐가 좋아서 날마다 노래 부르느냐고 핀잔주시던 일도 생각나네요. 어린 아이들과 살아야 했기에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린 하기로 결심하고 삶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한 주일성수, 모든 공적예배와 새벽기도회, 그리고 온전한 십일조와 각종 헌금생활을 했고 연약한 몸이었지만 봉사와 성전 청소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며 열심히 살았습

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진다’ 는 말씀 같이 몸이 더 건강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걷지 못하던 저를 걷게 하셨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곳을 만져 주셨습니다. 성전 청소를 하다 보니 변형되었던 팔도 펴지고 두 손으로 하던 빗자루질을 이제 한손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남매도 건강하고 착하고 예쁘게 잘 키워 주셨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아이들이란 말 듣지 않게 하려고 항상 노심초사하며 경계하며 가르치고 권면하였습니다. 딸들은 주님 중심으로 참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창용이가 좀 달라 마음고생을 시키곤 하였지요. 아들 때문에 다시 눈물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주변 친척들이 아이들 잘 키웠다며 칭찬하시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임이요 너를 붙들리라’ 는 말씀은 4남매를 키우며 큰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만나 주신다’ 는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와 네 아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셨습니다. 친정아버지를 통하여 매달 물질을 보내 주셨고 옷은 조카들 옷 물려받아 입혔고 그 외 필요한 것들을 교회 전도사님과 집사님들을 통하여 채워 주셨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받았던 그 때를 기억하며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 돌아보면 아팠던 것도 감사, 남편 가출도 감사, 자식이 마음 아프게 한 것도 감사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기도하게 했고 기도는 향기가 되어 주님께 상달됐으며 나의 어두웠던 삶을 빛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하나님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시는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새벽마다 이분들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포함하여 8식구가 살던 친정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신성아파트로 이사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병원 다니기도 수월해졌고 아픈 엄마 병간호 하는 것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우리 교회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사 나와 보니 집 맞은편에 허름한 교회가 보였습니다. 예배에 갈급함이 있던 저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던 딸 지혜에게 가보라

했습니다. 몸이 불편했기에 무엇보다 의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오라 했지요. 지혜가 보고 오더니 걸은 초라하지만 성전은 깨끗하고 좋다고 하더군요. 의자도 있고 꽃도 있다구요~

그날 저녁 지혜와 손잡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집에 온 것처럼 편안했고 포근했고 행복했습니다. 준비찬양으로 ‘주님의 빛진 자’가 들려오는데 몇 년 만에 들어보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 한절 한절이 저의 기도였기에 눈물이 나서 같이 따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에 찌른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에 덮에 걸려 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 하는 손 치유 하시고 속죄 하는 발 치유 하셨네  
이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떡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 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 할 때에 응답주시고 찬송 할 때에 기쁨 주셨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평생 갇아도 빛진 자되어 주님께 빛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신 이 주님이시라 능력 주신 이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갠지리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도 은혜를 받았는데 몇 년 만에 느끼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연약한 저의 영육을 위하여 안수 기도 해 주셨습니다.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걸기도 하라는 기도는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라’는 등록심방 말씀은 ‘세상에서의 천날 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란 입술의 고백과 새벽 기도회를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회복되면서 몸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즈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만남을 통하여 한양대학병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한양대

학병원은 예약하면 3년은 기다려야 할 정도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넘쳐나는 병원이었고 저와 같은 병이 있는 사람의 소원은 이 병원에 가서 치료 받는 것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 가는 병원인줄 알고 평소 꿈도 꾸지 못하였던 저를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데리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50일 만에 진료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그저 우연이라 말 할 수 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로 이루어진 일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무더운 한여름으로 기억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틈 속에서 덥고 힘드셨을 텐데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모든 수속을 다 밟아 주셨고 저의 진료와 치료가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 주셨다가 함께 당진으로 내려오는 일을 제가 회복되어 버스 타고 다닐 만 해 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해 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목사님 내외분께 많이 감사해 했지요. 아직까지 부모도 형제도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요즘 세상에 볼 수 없는 진짜 참 목사님이라시며 이런 목사님 부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은혜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열심히 협력하고 기도하며 맡겨진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죽는 그 날까지 헌신하며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1994년에 오른쪽 무릎 수술을 시작으로 하여 왼쪽무릎 수술, 고막수술, 고관절수술 등 네 번의 수술을 받고 지금은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 지금의 성전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면서 하나님께 재수술 없이 평생 살게 해 주시길 기도했었습니다. 올해가 24년째인데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면 아주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공 관절은 길어야 12~13년이면 수명이 다 하는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믿음의 고백과 기도는 역사 하시는 힘이 커서 현대의 의술도 초월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써서 기네스북에 까지 올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불편하셨던 친정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치매였지요. 남들이 말하는 순하고 착한 치매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악한 영에 지배를 받으셔서 싫어하시고 욕도 잘 하시고 힘도 엄청 세 지셔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는 말씀을 붙잡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악한 세력은 물러갔고 어머니는 잠잠

해 지셨습니다.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나에 구세주라’ 를 한 자씩 한 자씩 입술로 고백하도록 시키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상 일 같았으면 너무 힘들어 그만 포기했겠지만 어머니의 천국이나 지옥이나 하는 영혼 구원받는 문제인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절박한 심정과 사명을 가지고 새벽마다 강대상 앞으로 나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목사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경 필사 노트에 ‘영혼구원 놓고 투자하라’, 고 써 주셔서 일천번제를 드렸고, ‘고백시키라’ 하셔서 고백시켰고, ‘기도 많이 하라’ 하셔서 정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한번은 당뇨병으로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심방 오셔서 ‘사탄 물리치는 찬양 틀어 놓으라’ 하셔서 그 또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저녁 예배 때 치료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영혼 받으셨다. 이제 그냥 보내드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으로 받아드리고 이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로 기도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98년 3월 7일 세시쯤 소천 하셨습니다. 어머니 소천하시기 전인 97년 가을대심방 드리기 전에 준비기도 하면서 영혼 구원의 문제와 물질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였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심방 오셔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물으셨고 사실대로 고백한 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대로 임종 때 어머니를 조종하던 사탄권세가 다 떠나가고 영혼과 얼굴에 평안이 생기시고 참 예쁘셨고 좋아지셨습니다. 장례 절차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전적으로 교회에서 맡아서 하나님 뜻에 맞도록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일가친척들의 잡음과 핀잔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더불어 성도님들의 협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장’ 을 갖고 아직도 예수님영접하지 않는 가족이 있으시면 눈물로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상급과 면류관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영혼은 구원 받으셨지만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지 않아 많이 아쉽습니다.

2011년 가을대심방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 이란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내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도 계속 궁금했습

니다. 그리고 얼마 후 왼쪽 무릎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빨라 되원해도 된다 했지만 멀리서 병원 다니기 번거로워 실밥 뽑을 때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동생이 와서 시중을 들어 주어 너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기까지 했었다니까요~ 하지만 퇴원해서 혼자 집에 있을 생각을 하면 뭐든지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기에 조금 겁나고 싫었습니다. 역시 병원에서는 몸이 좋았는데 집에 오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각자 일들이 있기에 저에게 매달려 간호해 줄 사람이 없어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도 한참동안 발버둥 쳐야만 했으니까요. 무릎 뿐 아니라 전신이 너무 아파서 막 울면서 나를 도와 줄 사람을 보내 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 어느 겨울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남편을 택할 것인가’ 양단간에 결정을 하라고 협박하던 남편은 고민도 안하고 하나님을 택한 나의 결을 또 다시 떠났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남편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자녀들도 잘 자라 주었지요.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고 험하게 가출했던 남편이 돌아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동안 잘 해주지 못한 것 남은 인생 살면서 다 갚겠노라 말씀하시면서요.

너무 아팠던 저는 간호 해 줄 남편이 오셔서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아빠가 필요할 땐 옆에 없다가 다 장성한 지금 필요도 없는데 무엇 하러 왔느냐? 다시 나가라……. 아빠가 집에 있으면 애들이 다신 집에도 오지 않겠다고 아주 강경했습니다. 중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는 또다시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자녀들 사이가 화목하길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 마음을 만지셨고 또 엄마를 극진히 보살피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진심을 보게 되었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손과 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녀 같으면 3일도 못했을 것 같은데 자존심 강하던 남편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아빠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 드리며 여느 가정과 똑같이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한 것이 제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괴로움과 한숨이 기도가 되었고 응답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고 1998년 3월 14일 주일에 아버지께서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는데 그 곳이 우리 당진순복음교회입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 한 후 14년 만의 응답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었지요. 목사님께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 주신데 대한 은혜에 감동 받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딸인 저보다 목사님의 기도와 헌신이 아버지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첫 주일 예배 이후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다시 기도하게 하였고 그 후로 각종 공적예배와 행사 그리고 새벽기도회까지 드리셨습니다. 72세라는 늦은 연세에 시작하신 신앙생활이기에 정말 열심히 하셔야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실 텐데……. 저의 마음은 아주 급했습니다. 구원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는 말씀으로 기도 해 주셔서 감사 드렸고 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처음 마음과 같지 않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습니다. 금요일이면 주일에 드릴 헌금 새돈으로 바꾸어 오셨고, 구역예배 드릴 때는 손수 다과를 준비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도 많이 연료 하셔서 몸이 허약해 지셨습니다. 병원 입원과 퇴원을 계속 반복 하였고 식사로는 죽을 드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포함해서 9남매를 두셨습니다. 혼자 병든 아버지 감당하기가 버거워 다른 형제들에게 단 일주일만이라도 부탁해 보았지만 아무도 냉큼 나서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야외예배 때 보물에 적힌 말씀이 ‘뭍’ 인 것을 보고서야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나의 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성 다해 보살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감각 없던 나의 손에 감각이 돌아오고 아프던 다리가 또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축복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우 힘들었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 안다’ 는 하나님의 감동이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시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심방 오셔서 날마다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었기에 임종시 천사와 사탄의 줄다리기를 어찌 감당하시고 이기실시 저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찬양도 틀어 드리고 기독교 방송도 틀어드리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가을대심방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고백하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 부르고 고백했는지 주님만이 아실

겁니다.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아버지께서 추수감사 찬양대회에 나오셨습니다. 깨끗이 샤워 하시고 깨끗하게 세탁된 옷 입으시고 평소 예배와는 다르게 3시간 정도 진행되는 추수감사 찬양대회를 잘 드리셨습니다. 조금도 피곤치 않으시다 하시면서 오히려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손자며느리 다 보시고 교회 예배와 겹치지 않는 상쾌했던 어느 날 소천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지 말라’ 는 유언이 있으셨는데 자식들 간에 약간에 마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잘 이야기 되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이 내가 감당 할 수 있는 만큼이었음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2015년 가을 심방을 사모하며 영혼 구원과 물질에 축복을 사모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성경에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남편과 창용이 정은이가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있어서 믿는 자들도 믿음을 지켜 나가기 어려운 이때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서야 어떤 세상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심방 때 오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본문으로 주시면서 ‘두려워 말라’ 는 제목으로 제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것이라 하셨고 기도하라 하셨고 사랑과 인내로 승리하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한을 풀어 주신다고요. 제가 심방 준비 기도하며 새벽 제단을 쌓을 때 얼마나 애통하며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풀어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받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와 기쁨과 감동이 몰려오는지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 마치고 며칠 후부터 낮 한시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불편해 택시타고 다녔지만 지켜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에 의지하여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자녀들은 걱정하지만 저는 정말 신나고 행복하게 교회로 향합니다. 또 야외예배 보물찾기에서 나온 ‘봉사’ 에 순종하기 위해 몸이 불편해 하지 못하던 화장실 청소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에 이 작은 봉사를 통해 즐겁게 화장실 사용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몰려옵니다. 아들 창용이는 혼기가 꼭 차고도 넘어갔는데 아직 제 짝을 만나지 못하여 기

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진이가 하는 말이 오빠는 결혼을 못할 거랍니다. 요즘 아가씨들 똑똑하고 야무져서 우리 집 같은 곳에는 시집을 안 온다는 거죠. 엄마는 맨날 아프지, 집안은 돈도 없고 형편 어렵지……. 거기다 형제도 많지…….그러나 이런 문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여이지 저의 영려는 아니었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다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간구하는 모든 것에 풍성히 채워 주셨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영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진의 그 볼멘소리가 자극제가 되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건 맞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창용이가 술에 잔뜩 취해 와서 자고 있는 저를 깨워 따지는 겁니다. 자기한테 관심은 있는 거냐, 선보라는 소리 한번 안하냐 등등 밤새 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 그대로 새벽을 맞이하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1년 정도 지냈을 겁니다. 36살 노총각 창용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며 데려왔고 딸 둘에 아들 하나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이젠 신앙의 문제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기도이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의 영혼을 놓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가 아이들 데리고 집 가까운 교회에 나가 간헐적으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과 다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세 아이 하나님 앞에 헌아식도 드리구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모든 성도들에 자녀로 기도 받고 보살핌 받을 다른 아이들의 헌아식을 보면 지금도 최고로 부럽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아이들 손잡고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에 발을 맞추는 것을 원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신앙을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주며 자자손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만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 또한 풍성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때를 기다리는 중이지요.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병든 자를 들어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네 시작은 미약 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응답과 열매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많은 자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이 작은 간증이 성도님들의 신앙과 영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사모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과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고 보살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헤아릴 수 없이 받은 은혜의 삶을 저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쏟아 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 드리고 2018년 올해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 당진순복음교회와 목회자님의 가정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올 한해 끝까지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딸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요한복음 15:7

## 전수현 권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속한자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였고 사실 1년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만 위로받기 위해 찾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자랑할 만한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성령 충만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온 마음 다해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체험한 소중한 경험을 모든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 잠시 생각에 잠겨 보았습니다.

1월에 목사님께서서는 신년 맞이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계획하시고 모두 동참하기를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마음 먹고 힘들지만 견디며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결혼 13년차이지만 친정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저렴하게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다보니 화장실 2개 달린 집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저에겐 너무 과한 소망이었기에 감히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저도 모르게 집을 구하는 기도가 되더라구요.

이 기도는 결코 나의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에 감동대로 했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하시고 나의 모든 걸 이미 알고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되었지만 기도했던 대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일주일 만에 저희 가정에 주셨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겼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다짐한 것이 있지요. 특별새벽기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새벽 제단을 꼭 승리하자고요. 남편은 다른 예배에는 다 나가도 새벽기도만큼은 싫다고 이야기 했었지만 지금은 몇 번의 상의 끝에 허락을 받아 열심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모습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런 체험 속에서 저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온전해 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구옥순 집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이라는 암흑기 있었듯이 나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암흑기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구하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받는 주님의 은혜를 나는 주로 듣기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지치기도 했지만 그 순간 나로 하여금 견디며 인내로 소망을 품게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42:5]”

출퇴근하며 걸어서 오고가는 길에 수시로 읊조리며 되씹고 또 되씹으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난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너무나도 잠잠했던 순간에도 주님을 나를 위해 일하셨고 너무도 부족하고 미련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이었음을 말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욘42:5] ”

욘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던 주님의 은혜를 올해 들어서是我的 눈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딤후2:6]”라는 말씀을 심방 때 받은 날부터 이 말씀을 잊지 않으려 하였고, 또한 주님을 처음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 저리게 느꼈던 순간 이 못난 자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여 “주님!! 열심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되새기며 나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편안함을 쫓으려 할 때 게을러지고 머뭇거리던 나의 손길과 발길을 해이해진 마음을 다시금 추스르고 맡겨진 일에 대하여 채찍질하는 말씀과 고백이 되었습니다.

근 20년의 세월을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말고는 사회활동이 전혀 없기에 알고 있는 인맥이라고는 성도님들뿐인 상황에 한 달 한 달을 채우시며 붙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눈으로 봅니다.

153은 제가 입사했던 기수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선세 마리를 잡았던 것처럼, 환경적으로 능력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이 일을 통해 나의 삶을 나의 하는 일들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2016년입니다.

끝으로 스스로 다짐해보기는 형통한 날에 자만하지 않으며, 다시금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가 나를 엄습한다 해도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이진영 권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는 당진순복음교회 주일학교 달란트잔치에 참여 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를 지내 오면서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버티어 왔는지, 그 순간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나의 능력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였고, 세상의 무엇으로도 해결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사랑한 나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로 버티어 왔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 하다고 했던 현대제철에 입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합격하여 일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그동안 해오던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이유로 공적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피곤함을 핑계로 많이 게을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큰 생각의 실수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입사 시켜주셨으니 나의 피곤함과, 어려움을 알고 계실거야. 다 이해 해주실 거야” 라고 당당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주일학교에서 청년회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소통하셨음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사를 하고 나서 몇 년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 김소현 성도

살롱~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7월 입니다! 간증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글로 쓰려고 하니 어떻게 써야할지를 한참 고민했습니다.

요즘 제가 깊이 깨닫는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느낀다는 점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를 거쳐 왔는데 나의



겉모습은 교회 잘 다니는 크리스천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의 속마음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술과 담배, 유흥의 문화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지만,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일 들 속에 나타나는 습관적인 언행과 이기적인 생각,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참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좁은 마음을 가진 저를 볼 때 ‘내가 정말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주신 심방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

사에 감사하라' 인데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민이삭 성도님과 함께 성전 밭기를 하고 있는데 두 손을 꼭 잡고 번갈아 가며 소망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삶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간간히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마다 한 번씩 드리는 구역예배도 기다려집니다. 구역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삶(직장,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쉬운 점은 한 달 동안 방학을 한다는 것이지만..

이 기회에 구역장님과 1:1 구역예배를 신청해볼까 합니다. 또한 기다려지는 것은 단연코 “수요일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사모하면 할수록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은혜가 배로 더해집니다. 이제 1장 남겨두고 있는데 끝까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따금씩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까 하는 1인입니다)

오늘도 저희 회사 팀장님께서 ‘김소현 이번 주에는 구역예배 드리러 안가? 수요일 저녁에만 가는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달 동안 방학 했어요’라는 소소한 대화를 통해서 작게나마 우리 교회를 알리고, 복음의 통로를 열고자 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닌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힘든 적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목사님, 성도님들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전 임마누엘학생회 헌신예배 때 성도님들 각각에게 말씀카드를 나눠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김연훈 청년이 저에게 말씀카드를 전해주

면서 ‘누나를 생각하면서 골랐어요’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 말씀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아멘.

저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하반기도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더욱 더 성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 군 특집



충성 !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김성광** 청년입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저의 고백을 통행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렇게 글로 쓰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 보다는 지금 군 생활을 하면서 받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26세 라는 팔팔한?

나이에 군에 입대 하는 것이 정말이지 겉으로는 약한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을 보이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연히 남자라면 가야죠.” 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다녔지만 정말이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나이가 완전히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때에 군에 가게 돼서 이것저것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없고 또한 피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있었고 저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 입대해서 6주, 충북 영동에서 3주를 거쳐 자대배치를 받고 지금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리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지금 서있는 위치에서 지난 몇 달간을 쪽 돌아보니 그 시간을 지나 올 때 불평과 짜증과 때로는 극단적인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저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준비 시켜 주셨습니다.

부대의 대장님이 합덕 분이신 것과 주님을 열심히 믿으시는 분이셔서 필요 이상으로 일개 병사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이번 달이면 저는 분대에 최고 선임이 되어 남은 복무 기간을 후임들을 이끌어가게 되었는데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필요한 지도력과 리더십 그리고 이해력을 더해주시기 위한 하

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최고의 큰 변화는 저의 가정입니다. 입대하는 시기에 아빠께서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기도해도 이루어 지지 않던 것이 군 입대라는 정말 썩동맞은 생각지도 않은 계기를 통해 아빠에게 은혜를 부여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아빠의 변화를 통해 저희 가족이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축복이 있었는데 앞으로 남은 복무 기간을 통해서도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지난 날에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남은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히 군 복무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곳 군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생각보다 제한되는 것도 많고 은혜와 감동의 시간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보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 제 신앙이 도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 어떤 복을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저희 각자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을 빨리 캐치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삶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리에서도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충성!!

필승!

당진순복음교회의 비타민 **김연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소통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울면서 교회를 떠나던 저에게 항내라는 기도하시겠다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일일이 적을 수 없어 죄송한 당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진심어린 기도와 관심으로 지금껏 군 생활을 해왔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나눌 이야기는 이번 하계 수련회 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입대 전부터 2016년 하계수련회를 사모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 참가하고 싶어서 6개월간 휴가를 참으며 주님께 기도로 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7월말이 되고 휴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7월 말까지

5분대기 임무수행으로 8월 1일부터 휴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수련회 시작하는 날에 맞춰서 출발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휴가를 올리고 결제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8월 2~4일, 8월 16~18일 두번에 걸쳐 휴가를 통제한다는 상급부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자동적으로 8월 1일에 휴가를 올렸던 저는 휴가를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기다림이었지만 수련회를 진심으로 사모했기에 인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상심한 마음을 최대한 숨기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고 휴가를 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괜찮아 아들~ 실망하지 말고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기도로 지금껏 수련회를 준비했지만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린 저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껏 제 군 생활의 매 순간순간을 역사하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를 주님의 전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사모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휴가 나가기 3일전에 주님께선 또 한번 역사해주셨습니다. 상급부대 지시사항이 8월 2~4, 8월 16~18일 통제에서 8월 16~18일 통제로 바뀌어서 전파가 내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운이 좋다. 군대가 순간순간 말이 바뀐다." 라고 말 할 수 있지만 저는 강력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의 개입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수련회 첫날 작년 수련회 때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가 있었는데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연휴야 내년이면 멋진 군인 아니 해병이겠구나. 덕분에 성도님들이 발을 쭉 뻗고 주무시겠다.^ 그리고 내년 수련회에도 참석 했으면 좋겠다. 아니, 참석 할 수 있어!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기도하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1년 전부터 준비시키셨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 하면서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은 '기도의 힘' 입니다. 당진순복음교회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이곳에서 저부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휴가 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진순복음교회 사랑합니다.♥ 필승!

# 이영주 사모

##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119:71)

지인 목사님께서 족저근막염으로 인하여 몇 달 동안 꼼짝 못하시고 지내시다가 지금은 치료 받으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걸어 다닐 수 있다는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픔을 통하여 알았다고 하시는 말씀에 “그렇지요. 목사님~ 고난이 유익이지요.”

라며 공감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어려서부터 한 겨울에 내복도 안 입고 살만큼 건강했고 연탄가스 맡아 잠시 의식을 잃었던 일 외엔 잔병치레도 별로 없던 나였습니다. 아이 출산 말고는 병원에 입원도 해보지 않았기에 현대병이라는 유방암 판정에 허탈한 웃음 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흔히 이러한 일이 있으면 왜 내가? 왜 나만? 그렇게들 생각한다고 하더니 정말 그럴더군요. 그러나 그 순간 나에게 주님이 주신 생각은 이 일로 인하여 우울해 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나도 주님께서 치료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영적 체험의 시간이 되겠구나 라고 직감했죠.



### “암이라는 이 일로 나는 즐거워 하겠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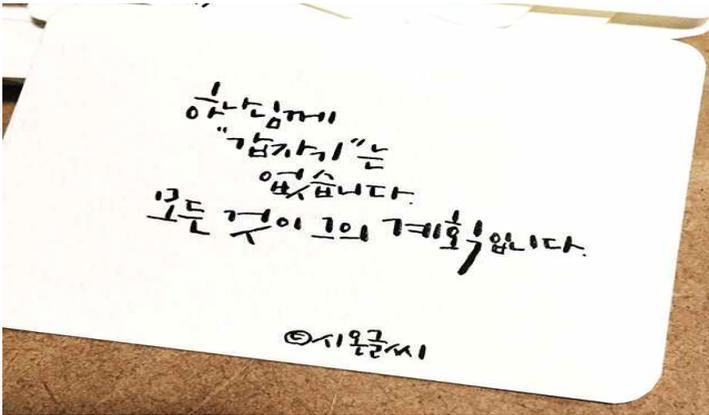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이 모토를 가지고 웃으며 가족들, 성도들, 지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였으니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하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프다고 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아파하며 위로해 주고 간호해주며 힘주셨던 분들을 생각하면 뼈가 저릴 만큼 감사하답니다.

주님은 나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항암이라는 큰 숙제를 하지 않도록 큰 은혜도 주셨답니다.

항암 치료라는 것이 암세포 뿐 아니라 좋은 세포 까지도 다 죽여 버리기 때문에 몸이 많이 상하고 이것으로 인한 합병증들이 나타나는데 전 이 큰일을 안하게 된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겪으며 그전에도 아픈 이들, 고통 받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는 했지만 서로 공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공감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고난이 유익이라고 아픔을 통해 신앙도 삶도 더 성숙해짐을 고백합니다.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건강 한 것에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앞으로 더 몸도 마음도 잘 관리하여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 사랑합니다.



## 이영선 집사

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많이 매섭죠!

추운 날씨 잘 이겨내실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셔서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으샤으샤” 힘내세요.

문서위원회의 한분께서 저에게 이달의 라이프지에 간증을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한번은 해야 될 일~~ 빨리 쓰고 마음 편히 지낼 생각에 입은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막막함에 거리를 걸을 때에도 밥을 지을 때에도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압박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성도시절 때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체험한 첫 경험이었지요.

우리 연우가 6-7세 때 힘든 고난이 연우와 우리가족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첫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연우가 잠이 든 후 11시 30-12시 정도가 되면 어김없이 잘 자던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도 놀라 매일 밤 안아주고, 업어주고, 애를 써 봐도 쉽사리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30여분정도 진을 다 뺀 후에 다시 잠을 자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우가 다른 날과 다르게 갑자기 잠에서 깨 울면서 거실을 무당이 곳을 하며 뛰듯이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엄마이기에 어떻게든 멈춰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연우를 꼭 끌어안고 울고 있는 연우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일 보던 우리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연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빛이랄까요! 어느 정도 진정되어져 가는 연우에게 “연우야 왜 그래~~~?” 하고 물었더니 그 어린아이가 “엄마 저도 안 그러고 싶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상황을 사모님을 비롯한 성도님들께 말씀드려 보았더니, 집에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낮에도 연우가 잠들기 전에도 늘 잊지 않고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후로 성도인 저로서도 이해 할 수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연우가 잠을 깨지 않고 평안하게 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에겐 너무도 크나 큰 체험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우도 뭘 아는지, 제가 깜박하고 찬양 트는 것을 잊는 날이면 “엄마 찬양 틀어주세요” 라고 말했지요. 아이인 연우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찬양에 위대함을 알았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체험으로 인해 저는 멀다면 먼 순성에서 당진순복음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끈을 놓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은 아니고요. 이번 여름에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장미가 장염으로 인해 열린 내과에 입원 중이어서 심방을 갔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유방초음파 검진을 한다는 광고문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해 보고 싶었던 차라 예약을 하고 이른 아침 검진을 하였는데 가슴이 철컹 내려앉는 말씀을 의사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혹이 하나 있는데 큰 병원에 가서서 조직검사를 빨리 받아보세요”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놀라 눈앞이 캄캄했었습니다. 조카가 근무하는 아주대학교에 예약을 한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주대 의사 선생님께서도 혹 모양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셔서 결과가 나오는 7일 동안 몸도 마음도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중보기도도 요청했고, 목사님께서도 기도 해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인지라 불안함은 잘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세상말로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초등학교에서 지킴이 알바를 낮 11시-2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나마 가정에 보탬이 되려고 시작했던 일인데 늘 나가던 1시 기도모임에 나갈 수도 없고 많이 하는 봉사도 아니었지만,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마음이 불편하였지요. 저에게 위기가 찾아오니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조직검사에서 암이 아닌 섬유종으로 나오게 해주시면 저 이 일 그만두고 기도모임도 잘 나가고, 봉사도 잘할게요. 도와주세요! 라고요

그 기도를 한 후 마음이 조금은 평안했습니다.

다음 날 결과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구역장님께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 동안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운전대를 한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 두 손을 놓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입에서도 말이 나오지 않아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도착하였습니다.

도착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의사선생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암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며 웃음 띤 표정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혹을 내시경으로 제거한 후 아무 일 없는 듯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과의 약속 지켰습니다. 바로 학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또 기도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신앙의 체험 많이 하셨지요. 늘 그것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 많은 힘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 송미정 집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당진순복음 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우리교회에 1997. 3. 2에 등록하여 지금껏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송미정 집사입니다. 저의 삶은 삶 자체가 간증입니다. 성격으로 보나 기질로 보나 생활 모습으로 보나 세상 속에 파묻혀 인생의 낙을 즐기며 세상의 더러움과 유혹 속에 온갖 방탕함을 따라 갈 수밖에 없던 지극히 인간적인 자였습니다. 그런 저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어 이렇게 참된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해 주시는 삶으로 인내하며 살 수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부요함으로 살아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힘차게 충성된 일꾼으로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심 또한 구원으로 이끌어주신 것을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7년이 되어가네요. 저의 친정아버지는 1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식의 마음을 무어라 표현 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함께 밥을 먹으며 아버지가 웃는 것을 보는 것이 그나마 자식으로써 할 수 있는 도리라 생각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팔에 다시 구멍을 뚫고 투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리웠습니다.

“선생님 이식수술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연세는 69세였습니다. 70 다 된 노인네가 무슨 이식이나

고 그냥 그렇게 사시라는 의사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식에 대하여 알아보며 인터넷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와 수술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1달도 채 안되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 모든 것을 순조롭게 행사신 분은 하나님이기구나.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더 빨리 왜 아버지께 신장 이식을 해드리지 못했을까 근심했었지만 더 일찍 했다면 우리 다회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이 또한 주님이 저를 향한 계획하심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울 만큼 회복도 빨랐고 아버지께서는 건강을 되찾으시고 날이 갈수록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수술을 다짐하면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엄마의 신앙이 다시 회복하는 것과 아버지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뿐이라고요. 전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남편의 반대도 그 어떤 수술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엄마의 신앙과 믿음은 온전하여지고 아버지는 교회에 잘 나가시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한 번씩 나가시며 감사의 헌금을 드리시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자의 헌신을 통하여 남동생이 신앙을 다시 찾았습니다.

동생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더 놀랍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둘째 이모도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했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했던 막내 고모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함은 하나님을 믿는 친정식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에 우리 송미숙 권찰도 너무 예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너무 고마워요.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심을 부어잡고 인내의 기도로 산다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서는 못하실 것이 없음을 믿으시면서 다시 한 번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 올 수 있도록 땅 끝까지 네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심을 순종하며 신앙의 경주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9절) 아멘

## 이종희 집사

신앙 간증 부탁을 받고 나는 잠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을 체험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수많은 일들 중 무엇을 증거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가장 최근 일을 증거 할 것인가 아니면 그중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일을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듯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후로 단 한순간도 내 옆을 떠나지 않으셨고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쪽~내가 주님

자녀의 길만을 걷도록 좌로 몰으시고 우로 미시고 딴 길로 새지 않도록 보듬으시며 철벽으로 보호해 주셔서 간증할 일을 이렇게 많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대략 19년 쯤 됐을까? 나는 김미진 집사님의 전도로 당진순복음교회를 오게 됐다. 나에게 우리 교회의 첫인상은 사랑으로 가득하여 따뜻하게 느껴졌다거나 가족 같은 분위기라 또 오고 싶다가나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난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을 믿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무식해 보이기까지 했다. (≡주여 ~) 그 이유는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을 인정 하고는 있었으나 이미 성경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과 사고로 그릇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상태가 이러하니 이런 내게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 듣는 말씀은 결코 꿀송이 같지도 달콤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였고 말씀을 듣고 고민에 빠지기 일쑤였다. 모르긴 해도 김집사님은 이런 나 때문에 아주 많이 답답해 하셨을 것이다. 집사님은 나에게 신앙의 멘토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이종희 자매를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며 수고하고 참 많이 애써 주셨다. 그 덕분에 근 이십년이 지난 지금 나는……. 당진순복음교회의 열매구역 구역장으로 사역중이다.^.^ 하나님은 말씀에 의심이 많던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고 주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한 영성도

허락해 주셨다. 잘할 땐 잘했다고 못하면 잘하라고 칭찬과 훈계를 바로바로 주셨고 이런 체험을 해가면서 정형화 되어버린 말씀에 관한 나의 딱딱한 관념들이 점점 녹아지기 시작했다.

김미진 집사님께서 어느 날 내게 가정예배를 제안하셨다. 처음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시는데 ‘저분은 교회 가면 교회예배 집에 오면 가정예배 어쩔 사람이 교회에 관련된 것만 하지? 사이비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날 전도해준 사람이고 나 때문에 애쓰는 사람이니 하자는데 해보자는 생각으로 김 집사님과 더불어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했다.

내 인생의 첫 경험이라 둘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어색하던지~~ 둘이 그러고 있자면 오글거리기가 그지없었고 특히 가장 참을 수 없는 순간은 기도시간이었다.

집사님이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면 민망 그 자체였고 어색한 마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공부에서 주입식 또는 쇠뇌교육과 같은 것이니,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부터 그 맥에서 혼자하시라고 말하고 싶다가도 너무 진지하시고 하도 열심히 기도하시니 사람의 도리로 차마 매몰차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친구가 없던 내게 집사님은 밥도 같이 먹자 해주고 때로는 달고 맛있는 시어머님 김치도 많이 주시고 과일도 주실 땐 항상 크고 좋은 농으로 주시고 ㅎㅎ 내게 이웃이란 이런 것임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기에 아마도 그 재미도 쏠쏠하여 가정예배라는 오글거리는 날마다의 행사를 그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집사님은 예배드리자고 내게 말씀하셨고 오후에 집사님 댁에 가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집사님은 내게 기도제목을 물으셨고 나는 남편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 등 아주 평범한 기도제목을 내놓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그날따라 집사님은 내 기도를 힘주어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좀 신경이 쓰였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웬지 뭔가 꺼림칙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그것도 남편이 일할 때의 안전을 놓고 말이다. 지금 같았으면 이런 경우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가 보다~ 라고 여기며 나도 주님을 큰소리로 불러가며 함께 기도했을 텐데 말이다. 어찌됐던 가정 예배를 마치고 난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세시쯤 되었을까? 초인벨이 울렸다. 남편 회사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짜고짜 의료보험증을 달랬다. 그리고는 보험증을 가지고 이내 가버렸다.

남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나는 그저 걱정만하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밤에 남편이 돌아왔고 얼굴이 좋지 않아 보였다. 어디 다친 거냐고 신발도 벗기 전에 물었다. 남편은 내게 자초지종을 말해주었다. 고속도로 다리 공사하다가 다리에서 수 미터 아래로 떨어졌으며 그런데 돌짜 바로 옆에 떨어져서 머리도 멀쩡하고 팔다리도 온 좋게 멀쩡하다고 말했다. 기절했는데 직원들이 놀라서 보험 카드를 들고 병원에 데려갔단다.

아! 주님~~

그 순간 낮에 집사님의 기도 생각이 났다. 그리고 순간 아찔한 생각도 들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김집사님이 남편 기도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날 전도해주지 않았더라면……. 남편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 확실했다. 다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남편을 지켜주신 것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믿겨지기 시작했다.



## 김정임 집사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접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초등학교 때 잠시 또 중고등학교 때 잠시 교회라는 곳에 다녔었다. 그러다 결혼 할 때까지 세상 속에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순성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신혼의 동지를 틀었다. 그곳에서 지금에 박선진 집사님과 이영선집사님을 만나 친구로 지내며 큰 문제없이 자잘하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때 박집사님과 이집사님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나보다 먼저 큰 아들 성일이와 작은아들 성현이를 교회에 보내게 되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당진순복음교회이다. 당시 주일학교 유치등부에 다니던 성일이는 교회에 예배와 프로그램들이 재미있다고 하며 “엄마도 우리 교회에 한번 와 보라” 며 조르기 시작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나 또한 아들의 권유가 마음 쓰였고 거절하기 힘들었다. 아마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아들 성일이를 사용하신 모양이다. 아들이 계기가 되어 우리 당진순복음 교회에서 신앙에 삶을 살기 시작했다. 큰 믿음이나 굳은 결심보다 그저 아들이 원하니 따라 나서기 시작한 발걸음이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가 좋아졌고 또 목사님의 말씀과 구역장님의 말씀이 좋았다. 어찌 보면 내 어린 신앙으로 마음 상하거나 시험에 들 수 있는 권면의 말씀을 들어도 이상하게 듣기 싫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 관심 갖고 권면하시고 기도 해 주시는 모습이 은근 기분 좋기까지 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에 내가 있게 되었음에 다시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 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에서는 신앙에 맞는 직분을 임명했고 그 직분에 맞게 더욱 열심히 주님의 일에 힘쓰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권찰이라는 직분도 집사라는 직분도 참 많이 더디게 받은 사람 중 하나다. 남들은 이런 내가 혹시 상처 받지 않을까 눈치보고 말을 아꼈을 것이다. 그러나 난 상처 받지 않았다. 오히려 직분으로 인한 부담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기에 마음 한편으로 다행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러다 2016년에 집사라는 직분

에 임명되었다. 권찰때보다 이루 말 할 수 없는 부담감이 밀려왔고 내게 너무 과분한 직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가 과연 감당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였다. 기도하니 정말 이전보다 더 성숙해진 내 모습을 볼 수 가 있었다. 또한 앞으로 더 열심과 열정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본이 되는 성도요 집사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내게 축복을 한없이 내려 주신 하나님께 나또한 한없는 헌신을 드릴 것이다. 난 순성이라는 시골 마을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그 중에 특히 세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들 아플 때가 가장 문제가 되었다. 이 녀석들이 한 아이가 아프다 나오면 또 다른 아이가 아프고 이 아이가 나오면 남은 한 아이마저 아팠다. 돌아가며 이 녀석 저 녀석이 쉴 새 없이 아프니 난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로 택시로 당진 읍내에 있는 병원을 많이도 드나들었다.

남편은 지금이나 그때나 회사가 교대 근무라 아이들 양육은 오롯이 내 몫이었기에 세 아이를 안고 업고 한숨으로 살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던 축복이 내게 쏟아졌다.

나의 어려움을 알지만 크게 내색 없던 남편이 내게 상의 한 마디 없이 이미 당진에 아파트를 알아보고 계약하고 입주를 하게 된 것이다. 우리 돈이 없었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남산 휴먼빌을 보여주셨고 약간의 대출과 시부모님의 도움을 통하여 무리 없이 새 동지를 허락해 주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입술이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멋지게 할 줄 몰라 병원 가까운 곳에 집을 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여름 날 한밤중 일이다. 새벽 3시쯤이었다. 성일이가 심하게 아팠다. 남편은 출근해 집에 없고 어린 성현이와 소은이까지 집에 놔둘 수 없으니 데리고 이 빗속에 병원에 가야 했다. 절망적이었고 괴로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가까스로 가까운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다녀왔지만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날 따라 택시까지도 나를 외면한 날이었으니 말이다. 면허증이 있지만 당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차가 없었기 때문에 고생

이 더 심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남편에게 지나가는 말로 내 차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흘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 아무 소리 듣지 못한 사람처럼 반응 없던 남편이 회사에서 성과금을 받아 내게 모닝을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할부는 빛이라 생각하는 남편이 차값을 일시불로 다 주고 완벽하게 내게 자동차를 사 주었다. 남편에게 먼저 고마워 해야겠지만 난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내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말을 아끼고 다음을 기억해야겠다. 다만 더 욕심을 내어 본다면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들어와 세 아이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이기고 오직 영혼이 깨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길 소망한다. 올 한해 지경을 넓히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영성의 지경을 넓혀 주실 때 남편과 아들 성일이 성현이 그리고 막동이 소은이까지의 영성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그 어느 가정보다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길 소망하며 기도한다.



## 조은희 권찰

Life지 1주년을 맞이하며 문서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이야기로 Life지를 꾸미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각자 한 부분씩 맡아 이야기를 만들기로 했다. 나에게는 간증 글이 주어졌다.

처음 시작부터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이어 나가야 하는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 해 줄 만한 간증이 없다고 생각했던 터라 더욱 막막했다.

막막함을 3월 라이프지 제본작업을 하며 다른 성도님들과 이야기 하다 보니 나에게도 간증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고 나는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중학교 때였다. 교회에 가서 학생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전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어려서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 하라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그 말씀을 넘겨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데 전도사님 말씀이 생각이나 기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세요’ 라고 매일 밤 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중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 그 후로는 구체적으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첫 번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유부단하게 착한 사람 아니고요. 맺고 끊음이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에게 의지해 살다가 처자식 건사 못하면 안되잖아요.

네 번째는 같이 돌아다닐 때 창피 하지 않을 정도로만 못 생기지 않으면 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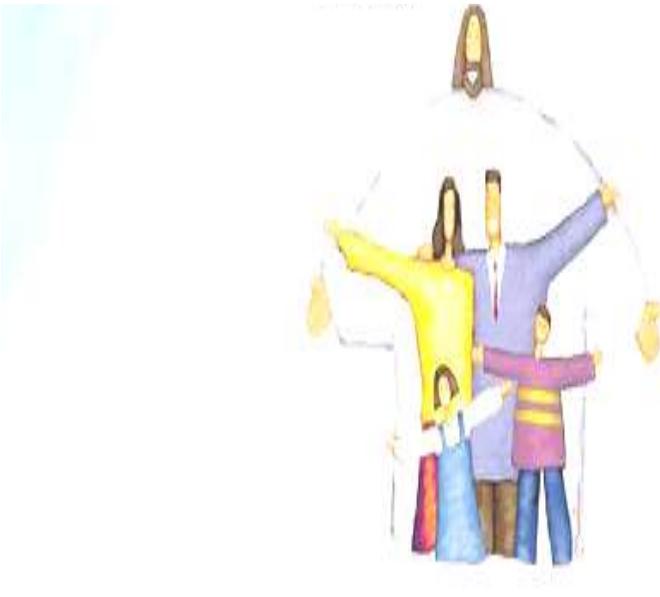
다섯 번째는 불협화음 내는 형제가 많은 집 보다는 외동 아들이 좋아요.

여섯 번째는 혹여 이 조건들이 다 충족되는데 아버님, 어머님 두 분 중 한 분만 계신다고 하면 저는 어머님이 계신편이 좋아요.’ 하고 나의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다. 또 가족들의 건강을 놓고 기도했다. ‘주님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혹여 다치거나 아프더라도 빨리 발견하고 치유해서 그 고통들로 인해 오랫동안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식으로 저녁 기도를 마무리 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몇 년 주님은 정말이지 내 기도에 한 치에 오차도 없이 그런 사람을 좋은 때에 보내 주셨고 결혼 할 수 있게 축복 해 주셨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의 기도 또한 정말 좋은 때에 들어 주셨다. 친정아버지가 언젠가부터 몸이 불편함을 이야기 하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안쪽에 숨어 잘 보이지도 않는 암 덩어리를 영사판독관이 보게 하셨다. 그 후에도 주님의 놀라운 일은 계속되었다.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수술 방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비싼 장비로 받으면 수술부위가 작고 저렴한 수술의 경우는 흉터가 크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러하시듯 정말 적당한 시기에 좋은 사람 또한 붙여 주셨다. 아빠 아시는 분을 통하여 다른 대학병원으로 모시게 되었고 좋은 의사 또한 붙여 주셔서 수술 부위는 최소화하고 신장도 완전히 제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절제로 살려 둘 수 있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일상생활 또한 편하게 하고 계신다.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주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나의 일을 행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런 주님의 자녀라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 이경애 집사

안녕하세요?

저에게 이렇게 귀한 간증에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며 가슴이 떨리고 벅차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첫아이 상윤이에 대해서 간증 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장로교회가 아닌 곳은 사실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교회를 옮기게 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 아픈 것보다 자식 아픈 것에 더 마음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아요. 그날 저녁예배 후 교회 사택 지붕 보수 공사로 한 귀퉁이에 쌓아 놓았던 함석을 남자 집사님들이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있던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상윤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렸고 불길한 생각에 얼른 뛰어가 보니 상윤이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프다고 우는 상윤이를 안고 정신없이 병원을 찾아갔고 입이 많이 찢어져서 꿰메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더 겁먹고 크게 울기 시작하는 아이를 끌어안고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아저씨 한분이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예수님 믿냐고 묻기도 하시고 아이를 위해 기도도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참 감사했지만 상윤이를 봐야하고 정신없던 마음에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그분과는 헤어졌습니다. 그 후 우리 가족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섬기던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기라 하시며 저희에게 고대 감리교회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고 그 교회로 가보았지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알아보고 천천히 가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신앙 생활하던 박은주 집사님과 김경화 집사님이 저에게 당진순복음교회를 가보자고 제의를 했고 지금의 우리 사모님과 전도사님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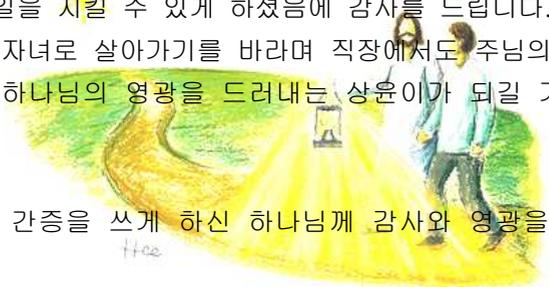
상담 중 예배는 끊기면 안된다는 말씀에 당진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교회를 정할 때까지만 예배생활이라도 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보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상윤이에게 기도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혹시 나와 상윤이를 기억하고 계실까?’ 생각하며 예배 후 목사님께 다가가 인사드리니 다행히 기억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곧바로 교인 등록을 하고 우리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윤이는 유초등부, 상우는 유치부로 다니며 신앙생활 하던 중 제게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상윤이가 찬양단들과 함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간절함이 부족했는지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 아이가 중 2 올라가면서부터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간절하고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하니 아이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찬양을 잘 듣지 않던 아이가 찬양을 들으며 잠을 잤고 핸드폰은 게임보다 찬양 듣는 용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고등학교 진학 문제도 있었는데 학교 담임 선생님도 안된다는 학교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아들이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병원이 형이랑 같이 성가대 서라 하셨다는 말을 듣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상윤이는 주님 안에서 살았고 고3을 맞이하여 취업이라는 숙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자면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학업 성적도 좋아야 하는데 상윤이는 그럴지 못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선생님의 말씀과 번번히 이력서를 내면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상윤이도 지쳐가고 저와 남편도 지쳤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의 11월도 다 지나가던 어느 날 지금의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합격 하여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서산으로 배정되었던 일터를 주님께서 본사로 가게 하시었습니다. 또한 그곳의 대표이사가 기독교인으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들이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직장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윤이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간증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송미숙 원찰

14호 라이프지의 간증 주인공이 되면서 어떻게 첫 인사를 드려야 할지...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지금부터 적는 글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마음의 글을 받아 내려가는 글이라 믿는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체험의 고백이 되게 하심이 감사하기만 하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 자녀가 있다.



그 중 하은이와 동유를 통하여 다시한번 하나님을 알게 하신일이 있다.

어느 날 하은이의 평발을 발견하게 되었다. 늘 봐왔던 아이의 발이었지만 그 날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 같다. 발 모양이 이상하다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되어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게 되었다. 유연성 평발이라는 진단과 그로 인하여 소아 무지외반증이 생겼고 발아치가 내려앉아 통증과 함께 종아리도 휘었으며 걸음걸이와 자세까지 불균형인 것을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장 기도로 준비하고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희망 없는 이야기만 듣고 왔다. 교정 깔창을 하겠지만 너무 늦어서 회복이 어려울 거라는 말에 빨리 발견을 못해준 부모로써 무너지는 가슴만 처널뿐이었다. 목사님께서서는 의학적 판단은 참고상고 이제부터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며 함께 가자고 말씀 해 주셨다. 나는 더 주님께 의지했으며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다른 대학병원의 전문인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또 다른 방향의 계획하심이 있으실 거라 믿고 기도하며 그 병원에 가 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달 뒤로 예약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 그 와중에 막내 동유의 발을 또 보여주셨다. 동유 발 모양도 하은이와 비슷하였다. 동유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하은이보다 더 뒤로 예약이 잡혔다. 이런 사정을 들으신 전도사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며 나와 가정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이라며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다. 이제 진료까지 한달 보름을 넘게 기다리는 동

안 새벽단을 쌓기로 작정했다.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 일주일에 두번 정도의 새벽 기도 시간을 주님께 매달렸고 중보 기도팀에 더 열심히 참석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하은이가 병원에 가는 날에는 새벽기도 후 내려가는데 근심보다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다. 나중에 생각 난 것인데, 제목은 “나의 등 뒤에서”였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었지만 그 새벽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부분만 반복해서 볼릴 뿐 앞뒤 가사는 전혀 생각나지 않아 답답했었다. 마침 그날은 수요일이었다.

은혜롭게도 오후 진료라 오전예배를 드린 후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더 강력히 기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내가 한 달 가까이 기도한 제목대로 좋은 소식을 듣게 해달라는 말씀을 목사님도 기도로 해주셨다.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조금 더 안정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고, 희망 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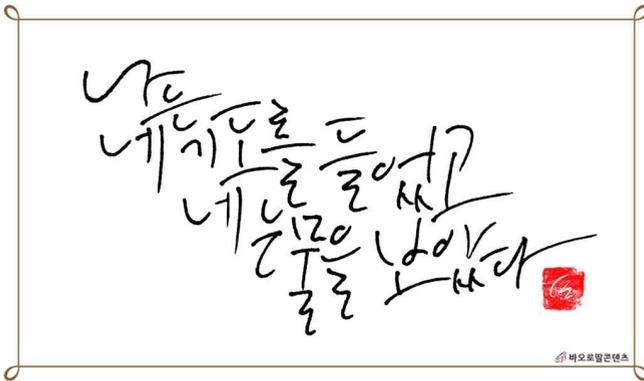
교정깎창을 본떠서 신고 회복을 지켜보자는 것이었다. 또한 나의 기도는 한시가 급하여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길 기도했었다. 이전 방문했던 병원은 발본을 뜨기 위해서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제작 선생님이 항시 대기 중이라 따로 예약없이 바로 진행 되었으며 가격 또한 한 켈레에 30만원 하는 것을 두 켈레 36만원에 저렴하게 할 수 있었다. 그 이후 동유를 위하여 또 기도하기 시작했다.

동유를 위한 기도 제목은 내 눈으로 보아도 이미 심한 평발 모양이었지만 불편한 깎창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무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다. 하은이를 보니 적응하는데도 굳은살이 잡히고 깎창이 높아서 잘 넘어지며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동유도 교정을 해야 할 심한 평발이지만 아직 어리니 운동효과를 기대해 보자며 6개월 후 많은 운동과 스트레칭 후 다시 검사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아~~~ 할렐루야~~~

동유를 위해 기도할 때는 사실 고난주간이라 한끼 금식이였다. 나는 목사님의 수요예배 말씀 후 감동이 왔다. 그래서 날짜가 겹치었으니 더 큰 마음을 먹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부활주일 후 월요일 진료까지 3시 금식을 일주일동안 하기로 하였다. 금식 첫날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 다 내려놓고 힘내서 집

안일을 하는데 이전에 없던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이것이 내가 아뢰지 않은 세밀한 것까지 이루실 주님의 응답일 것이란 확신에 배고픔 보다는 기쁨이 충만한 하루였고 빨리 병원에 가보고 싶어졌었다.

그 후 구역 식구들과 중보기도 팀 또한 목사님의 지원기도로 나는 금식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며 더 기도에 열정을 쏟아 준비할 수가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아이가 심한 평발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것도 기도응답인가! 간증인가! 하겠지만~~ 나는 아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은이가 교정깎창을 한지 두 달이 지난지금은 발 안쪽의 부주상골이라는 통증을 유발하는 뼈가 있는데 성장판과 연결이 되어 있어 함부로 수술은 못하지만 통증이 지출 될 경우 아이가 좀 크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두 달 만에 그 통증이 사라졌다. 나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 할 것이고, 9월에 있을 두 아이의 검사에 희망을 걸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이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 빨리 9월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고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싶다. 나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분명 또 체험할 것이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간구하는 믿는 자의 편이심을 믿는다. 주님 안에 거하며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 주심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 장명희 집사-

금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언제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두루 살피시고 권능의 두 팔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이루심의 섭리를 간증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어느덧 당진순복음교회 등록한지 20여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

처음 평신도부터 집사 직분을 받고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시켜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시고 섬겨주셨던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후반기부터 몸이 힘들어져 갔습니다.

올해는 더더욱.....

흔히 나이 마흔이 넘어갈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갔고 아프면 회복도 더디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힘들어만 갔습니다. 내가 힘드니 가족들과의 관계도 주님 안에서 있다고 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큰소리가 나고 날마다의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헌금생활, 예배생활, 가정생활, 아들 경환이의 문제까지 영적으로 막히니 답답하고 정말 살겠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 얼마나 공감 하실까요? 그러던 중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을..... 몇 년 동안 1년을 하나님께 맡기며 해왔던 금식기도가 이어졌는데 올해는 금식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었습니다. 계속 감동은 주시는데 막상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두렵기만 했거든요. 이렇게 미적미적 거리다가 거의 한달이 지났습니다.

답답함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회복 되지 않고 답답한 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

닐까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을 깨우쳐주신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결단하라고 주신 것이라 믿었습니다. 수요일예배 때 주신 강해 말씀이(마6:16~18) 금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다시금 내 가슴을 후려치며 결정하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금식은 영혼을 맑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강한 기도라고…….

그리하여 부활절이 지나고 에스더 행사가 잡혀 있는 4월24일~26일까지 작정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남편 조집사님도 같이 기도 하자는 의미로 달력에 체크 해 적어놓았죠.

기도제목은 조집사님과 영적으로 부딪쳤던 것들, 경환이 군복무 이후의 신앙생활과 직장문제, 나의 영성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식기도에 첫째 날 인간의 의가 강한 터라 힘들기만 했습니다. 당연히 새벽기도와 낮 한시 기도 모임에 참석했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부르며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둘째 날 새벽예배를 가려고 일어나는데 어지럽고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앉아 기도했죠. 새벽예배를 통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으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거뜬히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구요. 그날도 하나님은 응답 해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호산나 찬양대를 맡고 있는 사역에 그동안 목소리가 탁해 그만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목소리가 정말 곱게 청아하게 나오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둘째 날이 지나려 할 때 조집사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보고 있더군요. 그러나 기도하고 시작한 금식기도였기에 그 시선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육체는 힘들지만 영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드디어 마지막 3일째 수요일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맞추어 둔 알람이 시간보다 시간 반 일찍 눈이 떠져 곧바로 일어나 샤워를 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갔습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지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도할 때에도 강한 전율을 느꼈고 영성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일동안 음식하고 살림하는 것이 버겁기도 했는데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이어갔습니다. 수요일오전예배가 있던 날 서둘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금식하는 티 나지 않게 예쁘게 화장도 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김성령 청년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해피바이러스 김성령 청년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 라이프지가 발행되면서 간증과 질문지를 볼 때마다 나는 언제 간증과 질문의 답을 할 수 있을까? 간증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들려 드려야 할지, 나 같았으면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을 텐데' 라며 혼자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간증부탁을 받을 때 가슴이 너무 떨렸습니다.^^ 지금부터 순복음 라이프지를 통해 제 이야기를 해 보려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 속에서 제가 했던 행동은 성전 밝기 곧 기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실 취업을 해야 할지 대학교에 진학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냥 주님께 맡기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취업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취업을 놓고 성전 밝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학교를 마치고 성전에 올라와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취업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을 병행하면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신앙 생활하는데 직장생활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무서워 마음속으로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요'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 해 보니 제가 성전 밝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구요. ㅎㅎ

바로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움 없는 직장을 주님께 구했어야 하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차! 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놓고 기도를 시작 했습니다. 그 결과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이 겹치는 날이 없어졌습니다. 아멘이죠? ㅎㅎ^^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못해서 가장 후회되는 날이 있었는데 바로 졸업예배 때였습니다. 회사 송별회로 인해 졸업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 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그날 아침 울면서 회사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ㅎㅎㅎㅎ

그래서 취업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제일 먼저 신앙생활과 병행하기에 적합한 직장을 놓고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처럼 후회를 남기지 않으시겠죠?

혹시 4월 표어 기억하시는 성도님 계시나요? 4월 표어는 ‘너의 영성을 회복시키라’ 였습니다. 저는 4월 표어를 듣고 울컥했습니다. 제가 생각 했을 때, 3월 회사일과 개인적인 일들로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예배 참석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예배시간 때는 많은 생각을 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주님 앞에서는 핑계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는 나 자신의 위안을 삼으며 신앙생활의 기준을 낮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 눈물의 기도를 평소보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이 옛날처럼 다시금 잘 자리 잡혔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전 밝기를 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렸는데 응답 해 주셔서 그날 이후로는 무슨 일이 생겨 해결해야 할 일이 있거나, 기도제목이 있으면 성전 밝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저의 기도 제목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어떤 배우자를 허락하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배우자를 허락 해 주시겠지요? 성도님들도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성전 밝기를 통해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해결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님께 맡기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우리 당진순복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민이삭 권찰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을 처음 뵈을 때는 대학생이었지만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은 사랑스러운 아들 이룸이의 아빠가 된 민이삭 권찰입니다. 간증을 쓰기에 앞서 먼저는 부족하고 또 부족한 저에게 이런 귀하고 값진 기회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솔직히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는 제가 많이 부족하기에 감사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에 간증이라 하면 '왜 그런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거나, 환상을 보았다거나, 불치병에 걸렸지만 치유해 주셔서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거나, 사업이 쫓딱 망했는데 전보다 더 부하게 해 주셨다거나 등 앞에 열거했던 사건들처럼 드라마틱 하거나 누구보다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분들이나 간증거리가 있지 않나처럼 밋밋하고 평범한 삶에서 간증이라고 할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의 짧디 짧은 인생에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많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무뎠어져 느끼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의 경험 중 두 가지의 사건을 성도님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는 결혼하고 약 한달 반 뒤인 2015년 12월 말쯤에 일인데요. 눈이 많이 온 토요일 출근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눈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 미끄러져 핸들이 제멋대로 돌아가더니 바깥쪽 벽을 박고, 안쪽 중앙선 가드레일을 박고 섰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차 안에서는 에어백이 터져 에어백 연기가 나고, 밖에서도 차가 어떻게 됐는지 보닛에서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겁나서 열론문 열고 나와 바깥쪽 벽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뒤에 차가 오지 않아 2차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었지, 사고 당시에 저는 정말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당진에서 서산가는 길은 왕복4차선이라 대형차들도 뽕뽕 달리는 곳이거든

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네요.' 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곤 이내 제 손은 전도사님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매번 연락드려 상담 받곤 했거든요. 차는 폐차시키고 저는 며칠 입원하고 무사히 퇴원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의 출생입니다. TV나 영화의 피해 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쉽게 임신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에게 제약이 있긴 했지만 저는 열심히 노력만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미련했었죠. 지금에서야 돌이켜 보면 결혼하고 난 뒤로 줄곧 기도는 하였지만 간절한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자궁 외 임신이란 큰 아픔을 겪은 뒤에야 정신 차리고 둘이 같이 성전에 올라 전심으로 기도했고, 소현 권찰이 목사님께 안수기도도 이때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철야 기도회도 나가고 중보기도 요청도 하였습니다. 새벽 기도도 특별새벽기도회 때만이라도 꼭 나가려고 애썼습니다. 끝내는 이번에도 자연임신이 안되면 시험관 아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의사 선생님께서부터 들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오~지저스!!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달 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연임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아이를 목 빠지게 기다렸는지 단 적인 예로 임신테스트기를 족히 100개 가까이 쓴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은 돈 주고도 못살 귀중하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 다시금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것, 매일 매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이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 언제나 마음 놓고 부르고 찾을 수 있다는 것, 우리를 일년 365일 24시간 내내 보고 계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 밖에는 답이 없으며 내가 힘쓴다고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으니 바로 바짝 앞드려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는 엄연히 다르며 가장 적절할 때 주님이 해결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서 다 제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며 끝내는 그것이 나에게 은혜이자 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 해주셨던 것처럼 진실한 마음, 확실한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굳게 믿으며, 기도만이 답이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진부하고 모범 답 같은 저의 생각이었지만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듯이 절대불변의 사실과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모두 늘 평안하시길 기도 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이성재 청년

저는 우리 당진순복음교회에서 청년회 서기와 다니엘 유초등부 서기를 맡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주님의 일들을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되게 감당해 나아가고 싶은 21살 이성재입니다. 예전부터 꼭 한번은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라이프지 덕분에 간증을 하게 되네요. 처음에는 어떤 간증을 해야 되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떤 간증을 해야 성도님들께 은혜가 될까? 이런 간증을 과연 해도 될려나? 2주일의 고민 끝에 가장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 경험을 간증으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저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윤희자 전도사님과 이병철 장로님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벌써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지난 초, 중, 고 12년 동안 공부했던거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산업기사라는 자격증 때문인데 이 자격증은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고 취득하려면 거의 1년의 시간을 공부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꼭 얻어야 하기에 3개월 동안 저녁 11시까지 8시간 동안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였고 집에 돌아가기 전 교회에 들려 항상 감사기도와 소원기도를 했고..... 피곤한 몸은 기도가 끝나서야 귀가하여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공부와 교회일은 병행할 수 없으니 평일에만 공부에 집중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부 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1년에 걸쳐 해야 할 공부인

데 3개월로 단축하기로 결심하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저로서는 몹시 부담스러웠고 또 엄청난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자격증을 꼭 취득하게 해주실 거라 믿고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오니 조금의 허탈감도 있긴 하였지만 즐거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불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말만 되새겼습니다.

한달 후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큰 기대는 큰 실망으로 올 수도 있기에 최대한 기대 없는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성재라고 명단에 검색했더니 동명이인 2명이 나왔습니다. 둘 다 점수가 80점대였고 이걸 보면서도 저는 “내가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나서야 저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1년을 공부해야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증 시험인데 저는 3개월 밖에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걸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달 후 이제 실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노력과 기도의 힘으로 합격률 9.9%안에 들어가게 되어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편입을 포함한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 많은 기적을 제게 보여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글을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에 치룬 산업기사 시험을 통해 해답을 알아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천재는 1%의 두뇌와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천재는 99%의 전적인 믿음의 기도와 1%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항상 노력과 기도를 동반하는 생활을 이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해결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찌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15절)

가장 좋아하는 성경인물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연단 받고 40년의 광야생활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모세의 이런 인내심과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인물로 쓰게 되었습니다.

## 김병연 청년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역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경험했던 일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호서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때 3년 장학생으로서 들어갔었지만 시험을 칠 때마다, 2퍼센트 성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학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성적도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위해 과외도 많이 다니곤 했으나, 상황이 그리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1학년 2학년을 보내고 3학년이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주변 어른들의 ‘3학년인데 힘내야지’ 라는 응원과 후배들의 불쌍하다는 동정의 말, 또 선배들의 진심어린 충고까지...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제 성적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정도의 대학은 가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문제를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싶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택한 것은 1일 1성전 밝기였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수요일예배 금요일야 토요일 학생예배 주일 대예배 총 네번의 예배를 매주 나가고 있었기에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밝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시 다니고 있었던 학교에서 교회까지는 걸어서 3~40분정도 걸리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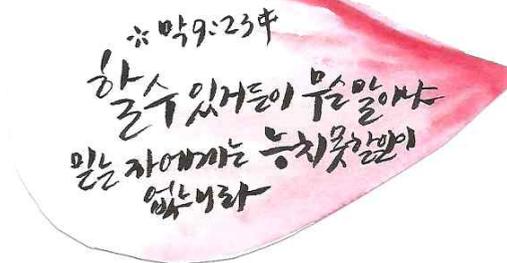
리었고 교회에서 집까지는 20분정도 더 걸립니다. 기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2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11시에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가면 새벽 1시 다 되어서 집에 도착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주 하다보니 어머니께서도 안쓰러우셨는지 차로 태워다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수시 지원기간이 되었는데 총 다섯 군데의 대학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두 상향지원을 했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하향을 하나 권유하셨습니다. 제가 반에서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상향지원을 해도 붙을까하는 생각이 잠깐 들때도 있었지만 그런 의심은 금방 사라졌고 저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원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차례차례 대학 합격공지가 뜨고 친구들 사이에서 희비가 갈릴 즈음에 저는 5개 지원학교 중 4군데가 불합격이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수능은 부족한 성적이고, 남은 건 상향 지원한 단국대 하나뿐이었습니다. 낙담할만한 상황이었지만 마음은 너무 편안했습니다. 걱정이란 건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놀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 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었습니다.

몇 주 뒤 합격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동안의 성전 밝기 한 노력과 열정이 보답을 받았다는 것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 마지막에는 결국 축복을 내려 주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이 간증이 누군가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해서 된 거고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 했을 때 성적이 높았기 때문에 붙었다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운이 좋았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느꼈던 평안함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의 순탄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결국 합격까지 하게 된 일이 주님께서 계획하심이란 것은 제 마음 안에 확실히 새겨져 있습니다.



## 박두식 성도

2017년도 마지막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을 제게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여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3년이라는 어찌 보면 짧고 어찌 보면 그다지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무엇을 하던지, 어떤 일이 있든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까지 무탈하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결혼 한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결혼 전 저는 결혼에 대해 크게 근심과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했고, 성전 밭기를 도전하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저처럼 성전 밭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성도들이 꽤 많지요?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기도 분위기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성전에 올라 기도 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결혼에 대한 간구를 하였습니다. 항상 일이 끝나고 늦은 시간인데라도 혼자 성전에 올라 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혹여 이 아들이 노총각으로 늙어갈까 염려되어 많이 근심하셨고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서울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청년부 프로그램 진행 중 하나님께서는 서울 목사님을 통하여 저의 모습을 보게 하였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 목사님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만난 그 아내를 저는 너무 사랑하고 아끼며 살고 있습니다. 또 아내는 정말 지혜롭고요.~~

당진 생활이 이제 1년쯤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당진 사람 다 되어 저와 더불어 우리 당진순복음교회에 알찬 성도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에 이 자매와 결혼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아시는지 아내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

하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보다 살아갈수록 더 애뜻하고 행복한 부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지금의 생활은 더 없이 감사의 연속입니다. 공중 나는 새들도 돌보시고 들에 핀 들꽃과 풀조차도 아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부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와 아내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구역예배 때에 성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 중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가장으로써 먼저 아내를 잘 섬겨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 아내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행동으로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저에게 구역장님의 말씀을 통해 아내 성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섬기지 못하였던 지난날들이 아내에게 정말 많이 미안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이 있으니 이제는 몸으로 마음으로 항상 아내를 섬기며 살아보렵니다.

올해 우리 가정에 주신 심방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대로 완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부부로 살겠습니다.

## 이민애 청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막 스무살이 된 새내기 청년 이민애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간섭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간증 해 볼까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진학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이 맞을까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 하는 것이 맞을까 많은 고민 끝에 정보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고 좋은 곳에 취업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며 1, 2 학년을 보냈습니다.

3학년이 되고 많은 회사에 지원을 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고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성전 밝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취업을 하게 된 친구들을 보며 나는 아무데도 못가면 어떡하지 하는 조바심이 있었나봅니다. 그러한 저를 보신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천천히 해도 된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누구의 말도 저의 불안함을 없애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언니 오빠들의 성전 밝기를 보면서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시작했는데 처음 기도할 때는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서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운적도 있었고 성전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할 때도 있었지만, 반복된 시간 속에 기도를 하는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하면서 불안한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어질까 두려워서 망설였던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제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일동제약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해서 지원 하려고 했지만 제약회사의 특성상 2교대일 수도 있고, 주말에도 일을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소리와 함께 신앙생활에 제한을 받고 집을 떠나야 한다는 문제에 고민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고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고 성전이었기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주일에도 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중에 지원을 하기 위해 작년에 회사에 취업한 언니와 연락이 닿아서 궁금한 것을 물으니 2교대도 아니고 주일 근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장소가 바로 여기다! 라는 강한 감동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평안과 담대함을 놓고 기도하면서 면접을 보기 위해 안성에 갈 때에도 이상할 만큼 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걱정도 없었고 불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에도 제가 준비한 말을 다 할 수 있었고 후회 없는 면접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결과를 기다릴 때도 불안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 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언니들이 너무 많아서 무섭기도 하지만 즐겁게 회사생활을 하고 있고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첫 월급을 타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의 감사와 기쁨은 최고였고, 비록 작은 것 일지라도 나도 무엇인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때론 친구들은 이러한 저를 이해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고.. 너무 유별나서 자기는 못나오겠다고.. ㅠ

금요일에 일을 마치고 금요기도회 반주를 하기위해 안성에서 부지런히 와야 시간을 겨우 맞출 수 있고 때론 집에 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주일 학교 교사를 마치면 또 바쁘게 가야 두 번을 갈아타고 3시간 걸리는 거리이기 에 몸은 고되고 힘들 수 있겠지만 늘 마음은 기대가 있고 설렘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합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민애”라는 이름답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품으며 살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십니다.

늘 밝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래서 저를 보는,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행복 해 지기를 기도 해 봅니다.

벌써 두 번째 월급을 받습니다.

비록 남들 보기에는 작은 일이고 웃겠지만 나의 삶을 간섭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였기에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날지 알수는 없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답게 씩씩하고 밝게 살아가겠습니다.**

## 김진숙 집사

어느 날 갑자기 김미진 집사님이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특  
던지듯 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간증 하나 쓰셔야죠?”  
장난인 듯 장난 아니듯 한 말 한마디에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지요.

“ 내가 간증을 ?”

그 뒤로 주일에 얼굴만 보이면 손을 내미시던 집사님에게  
“간증 할 만 한게 없는데요” 했더니 돌아오는 한마디  
“진숙 집사님이 간증거리가 없으면 누가 있겠어요?”

한 달을 고민해 봤지만 별로 간증이라 할 만 한 일이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았  
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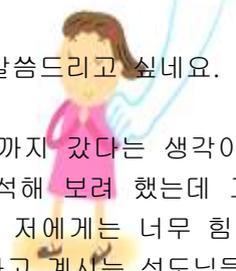
어릴 적 할머니가 주시는 헌금 100원을 받아 들고 사촌언니, 오빠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왔지만 때로는 사회생활로 인하여 때로는  
나의 생활 속의 문제라는 핑계에 숨어 하나님을 멀리 할 때도 있었어요. 그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믿음은 항상  
있었고 어찌 하여도 주님을 떠나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직업 특성상 주일에 쉴 수 없어 주일에 교회 갈 수 있는 직장을 갈망  
했는데 그 생각으로 힘들어 할 때 즈음에 회사의 사정으로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통해 나를 당진  
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당진에 내려와 순복음 교회에 나오면서 그  
동안 생각만 하고 있던 교회 일을 주일학교 유치부 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지  
금보다는 좀 더 젊어서 었을까요?

그때에는 힘든 줄 모르고 정말 열심을 다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돌연 권사님이신 엄마가 교회를 떠나시면서 하나씩 하던 일들을 내려  
놓게 되었고 자꾸만 어긋나는 분위기와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길고 긴 방학  
이 시작되었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모님, 전도사님, 집사님들의 잡아주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어떠했을지...

저의 손을 놓지 않고 잡아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  
니다..

나의 방향의 시간이 길어지고 정말 이제는 갈 때 까지 갔다는 생각이 들 때  
쯤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어요. 일단 주일에배만 참석해 보려 했는데 그게 또  
내 마음 같지 않게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게 저에게는 너무 힘이 들더  
라고요. 그때 처음 낯선 교회에 오셔서 적응을 잘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열



마나 대단해 보이시던지요. 너무 힘이 들어서 적응을 못하고 있을 때 전도사님께서 “내년에는 주일학교 교사하셔야지요?” 하시는데 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나도 적응을 못하고 해매는데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고민 고민을 하다가 주일학교 교사라는 핑계를 대서라도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도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낸 시간이 어느덧 1년이 지나갔네요. 이제 엄마도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의 짐을 하나 내려놓은 듯한 2018년도도 시작되었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적응기간을 가졌으니 이제 올 한 해 동안 뭔가 천천히 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 한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 보려합니다.

## 유하은 청년

안녕하세요. 딸 부잣집 원재옥 권사님네 둘째 딸 유하은 청년입니다. 오늘은 제가 느낀 것, 감동 받은 것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컸고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치등부 때는 소리엘 성가대를 했고 연극 할 때는 주인공을 했고, 학생회에 들어와서는 구역장과 임원을 하였습니다.

헌신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 때는 항상 준비찬양을 했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중학교 때부터는 유치부 보조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자라며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함이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 찬양 되게 잘하나봐, 이 일은 나 아니면 안될거야, 나만 할 수 있는 일인걸?’ 대학생이 되고 유치부 정교사로 임명을 받고 나름 더 열심히 제게 주어진 사명을 지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진에 있을 때와 타지에 있을 때가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드려야할 유치부 예배에 몇 번씩 못 오게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 교사라는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교사직을 내려놓았지만 마음 한쪽엔 ‘내가 나가면 이



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 할꺼야! 이것들은 나만 할 수 있으니 당연히 나를 다시 부르시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사를 그만두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저를 찾지 않으실 뿐더러 유치부의 아이들은 더 잘 성장하고 있었고, 다른 선생님이 세워져 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배 역시 잘 드려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 강박한 마음은 이런 상황을 보고 ‘내가 없어도 잘 드리네??? 뭐야!!!’ 라는 베베 꼬인 마음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교사를 그만두고 전도사님께서 저를 세워주시려고 주일 대예배 때 준비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 또한 옛날과 같이 제가 찬양을 잘 불러서 세워주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때 제가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항상 사람이 많은 토요일에 일을 하다 보니 소리를 크게 내게 되고 자주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찬양에 못 서게 되기를 몇 번...

그러다보니 이 자리 또한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준비찬양 자리에 또 빈자리가 생겼지만 저는 그 자리가 안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몇 주 후 그 자리에 저보다 더 사모함이 있는 성도들로 채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번에는 ‘아... 내 자리였는데... 나 말고도 채울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씁쓸했지만 차라리 잘 됐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는 와중에 토요일 청년 예배 설교말씀 중에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유다 족속을 구하는 중요한 일을 시키셨지만 에스더가 거부 하자 그의 삼촌 모르드개를 통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사님이 딱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자리 허락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야, 나 말고 누가 하겠어?’ 라는 사람의 생각과 교만한 생각으로 결국 제 기분과 세상에 맞추어 주님의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에스더에게 말하신 것처럼 저 말고도 제가 했던 자리를 채울 일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느낀 것은 2017년, 바로 작

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청년회 구역장이라는 한가지의 일만 맡았습니다. 위에 일을 겪으며 정말 작은 일이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는 나름대로 구역장 역할에 신경을 썼습니다. 물론 주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항상 부족하고 아쉽게 일을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과 생각에 큰 변화가 있었던 2017년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청년회 총무를 맡게 되었는데 제게 맡겨진 이 소중한 사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모두들 잘 지켜봐 주시고 지금 맡은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 장지은 청년

안녕하세요! 주일학교 1학년 교사, 밀알청년회 은총 구역장, 반주팀의 드러머, 문화부원으로 사역중인 장지은 청년입니다!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이 주어짐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을 설렘 없이 바쁘게 보낼 수 있어 행복합니다.

성경 스토리처럼 위대한 사건만이 간증이라 할 수 없지만,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저의 작은 신앙을 고백하려니 매우 긴장되고 부끄럽습니다. 짧은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이야기가 들어있을지 꺼내 보려하니 손에 잡히지 않아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에 이것을 전하고 나누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는 놀이터였고 집보다 편한 곳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렸고 무엇보다 든든했습니

다. 학창시절 교회를 떠나는 언니, 오빠들을 보며 결단코 하나님을 배신치 않으리라 늘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5개월, 시흥에서 6개월이라는 두 번의 타지생활은 모태신앙이었던 저의 또다른 못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늦잠으로 버스를 놓치고 주일을 의미 없이 보냈으며 이러한 일이 반복 될수록 신앙양심은 무감각, 무의식에 무뎠져 갔습니다. 유일한 휴무날 당진에 내려가기 버거웠던 마음 속의 또 다른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일성수를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드럼'이라는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를 빠질 때마다 반주자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참 믿음 없고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게 이 사역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었고 메마른 땅에 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의 믿음의 깊이를 깨닫고 다시 당진으로 내려와 생활할 때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드럼이라는 사역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떠나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저 알고만 있었나 봅니다.

믿음 없던 신앙에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메마른 땅에 계속 물을 부어 촉촉한 토지가 되었고 이제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올해 저는 많은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뛰어나서 주어진 일은 결단코 아닙니다. 부족한 저를 능력으로 채우시고 제가 체험한 주님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앞으로 주어질 모든 직분과 사역에 충성을 다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 되겠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두려움은 작아진다



## <문서위원회 2주년 소감>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또 각기 다른 모습과 성향을 가진 우리들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문서위원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로 묶였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오지 못하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은 다 같은 물줄기를 타고 내려왔기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처음 염려와는 다르게 마음들이 잘 맞았고 일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많았습니다. 처음 위원회에서 무슨 사역을 시작할지 머리 맞대고 상의 했었습니다 이때 예전에 하다 중단된 라이프지를 다시 시작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사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돼서 위원들이 먼저 나서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며 막을 수는 없는 일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작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상과 염려와 다르게 위원들이 너무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잘 것 없는 저의 말을 위원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 따라 주었고 누구 한 사람도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일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만 기도할 때마다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의 형통함을 놓고 기도해 줄 뿐이었지요. 그렇게 시작한 우리 ‘뉴 순복음 라이프지’를 발행하고 이제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주년 특집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써 주신 모든 간증들을 모아 간증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찾아가 부탁드릴 때 마다하지 않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력이 우리 위원들의 사역을 살피우고 있으며 또 우리 위원들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반백년을 살아가고 있으니 맨날 청춘은 아니니까요.

이때 하나님은 제게 잘 다듬고 세워 터를 만들어 능력 있는 후배 성도들에게 물려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이 작은 모습들이 이제 훗날 하나님이 세우실 어떤 일꾼들의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수작업으로 영성하게 만들어지는 책자가 아닌 좀 더 다듬어지고 깔끔하며 알찬 내용들로 가득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더 크게 살피울 수 있는 훌륭한 ‘순복음 라이프지’가 만들어지리라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끝으로 보석보다 더 빛나고 귀한 우리 박기숙 집사님, 이종희 집사님, 정현미 집사님, 또 전수현 권찰님, 송미숙 권찰님, 조은희 권찰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진 집사

처음 우리 당진순복음 교회에 와서 아직 너무 어색하고 뭐가 뭔지 적응하지도 못했던 그 때가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던 저에게 문서위원회에서 라이프지 발행 사역을 주셨고 저는 그저 하라시는데로 따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멈추었던 사역을 다시 시작하며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문서위원회 사역을 아주 신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지혜와 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십니다. 위원들은 제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좋다고 채택하여 라이프지에 적용하며 ‘아이디어뱅크’ 라는 듣기에 기분 좋은 별명도 지어 불러 줍니다. 깨달음은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깨닫게 하시며 감사 고백할 수 있게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칭찬합니다」 박기숙 집사

저는 다른 팀원들과 다르게 몇 개월 늦게 문서위원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맡고 있는 분류는 사진편집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었고 이 능력 또한 주님의 섭리라 믿고 있습니다. 결혼 전 스튜디오에서 사진앨범 편집 작업을 했었고 그때 손님으로 오시던 우리 목사님을 뵈기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 또한 목사님께서 기억하시고 문서위원회에서 일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늘 작업 시작 전에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디자인 편집의 아이디어가 생각났고 막힘없이 작업되는 것을 매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저는 더욱더 주님과 교통하고 있으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편집」 송미숙 권찰

샬롬 !

좋은 분들과 뜻 깊은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처음 위원회가 결성되고 각자 담당 사역을 나눌 때 선뜻 간증을 제가 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때로는 섭외가 어려워져 힘든 정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섭외하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수월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간증을 받았을 때의 감동과 감사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저 또한 얻는 것이 많은 사역(감사와 기쁨과 감동)임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지금까지보다 더욱 더 문서위원회에 힘이 되는 제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앙 간증」 전수현 권찰

‘순복음라이프지’의 성도 알아가기를 담당하고 있는 문서위원 이종희 집사입니다. 2년 동안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자료 부탁에도 믿음과 은혜로 협력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 장로님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 알아가기는 제게 은혜의 통로였음을 감히 고백합니다. 답변을 읽어 내려가며 도전받고, 은혜 받고 성도님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가슴 뭉클 한 적도 있었으며, 때론 그분들을 통해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특히 차마 내손으로 공개하기는 정말 어려운 소시 적 사진까지 아낌없이 제공해주신 분들께는 감사함뿐 아니라 솔직히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그렇지만 그 사진들로 인해 성도님들이 라이프지 읽는 즐거움이 더해 졌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당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문서위원회 위원분들~

매우 매우 사랑합니다. ♡

「성도 알아가기」 이종희 집사

문서위원회 막내 조은희 권찰입니다. 우리가 라이프지를 발간하기 시작하니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달에 이슈를 맡아 다달이 생겨나는 이슈를 작성해야 했는데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저런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사역에 임했습니다.

가끔씩 위원장님에게 묻기도 하며 정말 열심히 문서위원회 일을 감당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의 글을 보며 뿌듯할 때도 있었고 가끔 시간에 쫓기듯 작성하고 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슈를 찾아내고 전달 해 드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 「이달의 이슈」 조은희 권찰

처음 문서위원이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는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옛날에 발행했던 순복음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다시 뉴 순복음지를 다시 만들어 보자는 의견을 냈지요.

각자 한 분야씩 맡아 1호를 만들었습니다. 전 수줍음이 많아서 인터뷰는 어려웠고 그나마 타자를 조금 칠 줄 알아서 편집을 맡아 다른 분들의 정보가 모이면 모아서 정리하고 사진과 그림도 붙이고……. 컴퓨터에서 손 놓은지 어언 15년 ㅋㅋ

어설픈 솜씨로 목사님께 조언도 많이 받으면서 1호가 나왔지요. 지금도 1호를 보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어느덧 24호가 나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과 위원들의 열의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믿고 나아왔고 또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1호 보다는 2호, 23호 보다는 24호가 점점 나아지고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점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한쪽에는 뉴 순복음지도 한몫 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 「편집」 정현미 집사

◎ 이달의 교회소식

- 1. 부활절울동대회 / 4월 1일 오후5시
- 2. 드보라여선헌신예배 / 4월 15일 저녁예배
- 3. 봄여행 / 4월 16일~17일
- 4. 리브가여선헌신예배 / 4월 22일 저녁예배
- 5. 교회배 족구대회 / 4월 28일 오후3시
- 6. 선교사역 / 4월 30일~5월 5일

◎ 공지사항

- 1. 4월 생활실천표어 / 주님의 은총을 받으라
- 2. 4월 신앙서적 / 부부, 행복한 동행 ‘김병태목사’ 著

◎ 이달의 교우소식

- 1. 새가족등록 / 정효선집사 - 은유구역 드보라여선
- 2. 헌물 / 이종희집사 - 팝콘기계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